



## 물러마티니, 패키징 인쇄 집중 공략 “VSOP로 소량다품종 연포장 적극 대응”

물러마티니코리아(주)(대표이사 허재영)는 지난 1월 13일 본사 회의실에서 칼 스타우블리(Karl Staubli) 프레스 디비전 프로덕트 매니저 초청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물러마티니코리아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연포장 패키지 분야에서도 소량다품종화가 이뤄지고 있으며, VSOP 인쇄기를 통해 이를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글 | 조갑준 기자 kjcho@print.or.kr

이번 기자간담회를 위해 방한한 칼 스타우블리 프레스 디비전 프로덕트 매니저는 43년간 물러마티니에서 근속한 인쇄기 분야 최고의 전문가다. 그는 방문 이유에 대해 “한국은 아시아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고, 패키징 분야는 성장하는 시장으로 관심이 크다. 이번 방문이 오프셋 기술을 활용한 패키징 시장 개척을 가능하기 위한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패키징 트렌드 변화...오프셋 장점 요구

칼 스타우블리 프로덕트 매니저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최근 변화되는 패키징 시장에서의 소량다품종화 트렌드와 오프셋 기술을 적용하거나 플렉소 및 그라비아 기술과 하이브리드로 연결할 수 있는 패키징 트렌드에 대해 강조했다. 이에 적합한 인쇄기로 물러마티니의 VSOP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물러마티니는 원래 패키징 인쇄보다는 비즈니스폼이나 고속도로 카드와 같은 서식과 보안인쇄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실적을 올리던 업체다. 하지만 트렌드 변화에 따라 VSOP를 출시하고 패키징 시장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다.

칼 스타우블리 프로덕트 매니저는 “물러마티니가 패키징 시장에 진출하려는 이유는 고객의 요구 변화에 따라 장통 인쇄만 고집하던 플렉소와 그라비아 중심의 패키징 시장에서 소량다품종화라는 트렌드 변화가 생겼기 때문이다. VSOP를 출시하고 패키징 시장에 진출했는데, 플렉소와 그라비아도 많은 장점이 있지만 빠른 반응이 필요한 작업에는 오프셋의 장점으로 이를 대응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밝혔다. 또한 “오프셋은 플렉소나 그라비아에 비해 작업준비 및 전환을 위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용지와 잉크의 손실도 적은 장점이 있다. 또한 플렉소나 그라비아에 비해 잉크를 두텁게 올릴 수 없는 오프셋의 단점은 각 시스템끼리 하이브리드로 연결해 보완할 수 있다”면서 “이는 오랜 경험이 축적돼야 가능한 기술로 물러마티니를 통해 쉽게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연포장 오프셋 인쇄기 VSOP

물러마티니의 VSOP라인은 2009년에 드렌트 괴벨의 특허를 인수 후 물러마티니의 기술과 결합해 탄생하게 됐다. 2009년



1. 허재영 몰러마티니코리아 대표이사과 칼 스타우블리 프레스 디비전 프로젝트 매니저  
3. VSOP로 소량다품종 연포장을 적극 대응할 수 있다.



2. VSOP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칼 스타우블리 프레스 디비전 프로젝트 매니저

에 처음으로 소개된 이후 전 세계적으로 130대 이상이 설치돼 운용 중이다. 특히 구매 고객의 20%는 신규 라인을 재구매할 만큼 만족도가 높은 몰러마티니 비장의 무기로 불린다.

### 하이브리드 구성으로 다양한 효과 연출

오프셋 인쇄 기술은 고품질 인쇄로 1%까지 그라데이션 효과를 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표준 CTP작업 하에서는 200선까지, 고품질 CTP작업 하에서는 300선까지 최고 해상도를 표현할 수 있으며, 스토카스틱 스크린에서 20μ 망점 크기를 구현할 수 있다. 블랭킷과 판실린더 사이가 고압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원지의 두께 편차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표준화가 이뤄져 국제적으로 동일한 인쇄 색상을 구현하는 데 유리하다.

플렉소와 그라비아에서는 프린팅 유닛과 실린더의 한계로 제한이 따르는 색상 구현이 다른 여러 단통 SKU (Stock Keeping Unit) 작업을 하나의 장통으로 전환할 수 있다. 판 설치 및 제거, 청소가 간편해 작업준비 시간이 단축되고 인건비가 절감된다. 빠른 색상 전환 및 소량 잉크 작업이 가능하고, 자동 잉크 트레이닝 청소 기능과 쉬운 잉크관 청소 등의 장점이 있다. 작업 시작 시 각 인쇄유닛 당 1kg 미만의 잉크가 필요하고, 챔버나 호스에 잉크가 들어갈 필요가 없다. 플렉소나 그라비아의 경우에는 인쇄유닛 당 최소 20kg이 필요하다.

하이브리드 인쇄 적용에도 용이하다. 오프셋 인쇄와 플렉소

및 그라비아 인쇄유닛을 인라인으로 구성함으로써 코팅, 라미네이팅, 오팩 화이트, 매탈릭, 글루잉 등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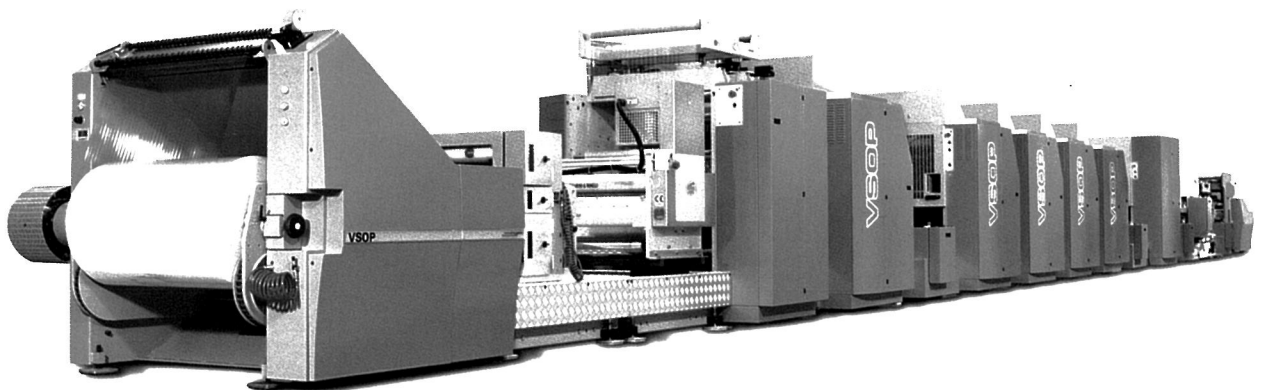
### 다양하고 효율적인 VSOP의 장점

**단순한 판교체 방식 :** 단순한 슬리브 교체 방식으로 작업 포맷을 간편하게 전환하고 판 슬리브 및 블랭킷 슬리브도 손쉽게 교체할 수 있다.

**작업 전환 속도 및 용이성 :** 1판 제작 당 1~2분의 짧은 리드 타임과 높은 유연성이 있다. 잉크 트레이닝 자동 세척과 잉크덕트 세척이 용이하며, 운전 시작 시 최소의 잉크량(~1kg/인쇄유닛)을 투입하면 된다. 기계 가동 시 챔버나 호스에 잉크를 채울 필요가 없다. 이에 비해 플렉소는 5~10kg, 그라비아는 최소 20kg에 달한다. 제판 비용이 플렉소나 그라비아의 1/20에서 1/50 수준에 불과하며, 작업 시작 및 전환 시간이 매우 짧다. 저장된 데이터를 불러서 작업할 경우에도 400m 정도의 파지면 충분하고, 탄소 재질의 슬리브로 간단히 교체할 수 있으며, 잉크 믹싱이나 점도 콘트롤이 필요 없다.

**공간의 효율성 :** 플렉소와 그라비아는 별도의 대형 판 저장고가 필요하지만 오프셋의 경우는 판 및 슬리브 저장 공간을 최소화할 수 있다.

**원격 지원 :** 24시간 비상 원격 지원 라인을 통한 본사 전문가의 모니터링 및 진단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이를 통해 몰러마티니 기술팀이 신속하게 지원한다.☞



몰러마티니 vsop